

### 학습목표

- I. 사자성어(四字成語) 이해하기
- Ⅱ. 상용 사자성어(四字成語) 이해하기

### 학습목차

- I. 사자성어(四字成語)
- Ⅱ. 상용 사자성어(四字成語)

## I 교시

- 1. 사자성어(四字成語)
- 2. 상용 사자성어(四字成語)

- ❖ 刻骨難忘(각골난망): 타인으로부터 입은 은혜와 고마움을 뼛속 깊이 새겨 잊지 않음.
- ❖ 刻舟求劍(각주구검): 배에서 칼을 떨어뜨리고 그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두었다가 배가 멈추면 칼을 찾음. 시세의 변화를 모르고 융통성이 없다는 뜻.
- ❖ 甘吞苦吐(감탄고토):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. 신의를 저버리고 이익만을 도모한다.
- ❖ 甘言利說(감언이설): 남의 비위에 맞도록 꾸민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.
- ❖ 學案齊眉(거안제미): 밥상을 들어 눈썹의 높이에 맞춘다. 아내가 남편을 극진히 공경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.

- ❖ 牽强附會(견강부회):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함.
- ❖ 犬馬之勞(견마지로): 개나 말의 수고로움. 즉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일컫는 말.
- ❖ 見蚊拔劍(견문발검): 모기를 보고 칼을 빼어 들다. 사소한 일에 맞지 않게 큰 대책을 세 우는 것을 말함.
- ❖ 見危致命(견위치명):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던져 싸움. 견위수명 (見危授命)과 같은 말.
- ❖ 結草報恩(결초보은):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음. 죽어서까지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.

- ❖ 孤掌難鳴(고장난명):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. 혼자 힘으로는 일하기 어려 움을 일컬음.
- ❖ 苦盡甘來(고진감래): 고생이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는 말.
- ❖ 過恭非禮(과공비례): 지나친 공손(恭遜)은 오히려 예의(禮儀)에 벗어남.
- ❖ 過猶不及(과유불급): 중용(中庸)을 벗어나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음.
- ❖ 管鮑之交(관포지교): 중국 춘추전국(春秋戰國)시대 관중(管仲)과 포숙(鮑叔)처럼 친구 사 이가 아주 돈독(敦篤)하고 다정함을 이르는 말.
- ❖ 刮目相對(괄목상대): 눈을 비비고 상대를 자세히 봄. 남의 학문이나 덕행이 현저하게 진 보한 것을 말함.

- ❖ 巧言令色(교언영색): 교묘하게 꾸민 말과 아첨하기 위해 아름답게 꾸민 얼굴빛으로 남 의 환심을 삼.
- ❖ 教學相長(교학상장):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 늘게 됨. 즉 남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이 모두 나 자신의 학문을 증진시킴.
- ❖ 捲土重來(권토중래): 말을 타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시 달려온다. 즉 패한 자가 세력 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 옴.
- ❖ 囊中之錐(낭중지추): 주머니 속의 송곳. 송곳은 주머니에 넣어도 뾰족한 것이 튀어나온 다는 말로, 재능이 빼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드러남을 비유한 말.
- ❖ 堂狗風月(당구풍월): 서당(書堂)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뜻으로, 무식한 사람이 라도 유식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견문이 넓어진다는 뜻. 또는 무 슨 일 하는 것을 오래 보고 들으면 자연히 할 줄 알게 된다는 뜻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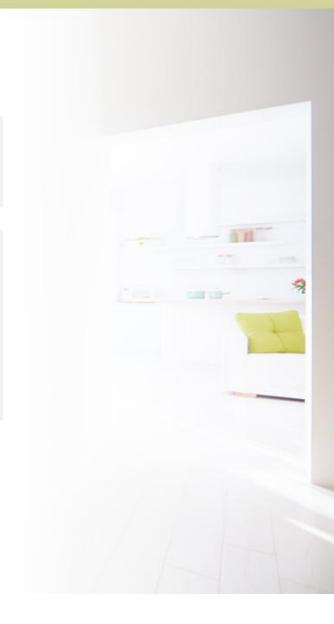
- ❖ 獨不將軍(독불장군):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는 뜻. 무슨 일이든지 제 생각대로 혼자 처리하는 사람이나 따돌림을 받는 외로운 사람을 비유함.
- ❖ 馬耳東風(마이동풍): 말의 귀에 스치는 동풍. 즉 남의 비평이나 의견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 버림을 비유함.
- ❖ 晩時之歎(만시지탄): 때늦은 한탄(恨歎)이라는 뜻.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 하여 탄식함을 이르는 말.
- ❖ 名實相符(명실상부): 이름과 실상이 서로 부합되는 것. 알려진 것과 실제 상황이 차이 가 없음.
- ❖無爲徒食(무위도식): 하는 일 없이 먹고 놀기만 함. 게을러 능력이 없는 사람.
- ❖ 民貴君輕(민귀군경): 백성이 존귀하고 사직(社稷)은 그 다음이며, 임금은 가볍다고 한 데서 유래한 말.

- ❖ 蚌鷸之爭(방휼지쟁): 도요새와 조개가 다투다가 둘 다 어부에게 잡히고 말았다는 뜻. 양자가 서로 다투다가 제3자에게 이익을 빼앗김을 비유한 말.
- ❖ 焚書坑儒(분서갱유):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생매장(生埋葬)하여 죽인다는 뜻. 진(秦)나라의 시황제(始皇帝)가 학자들의 정치 비평을 금하기 위하 여 경서(經書)를 불태우고 학자들을 구덩이에 생매장하여 베푼 가혹(苛酷)한 정치를 일컫는 말.
- ❖ 四面楚歌(사면초가): 사면(四面)에서 들리는 초(楚)나라의 노래라는 뜻. 전후좌우로 적 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지다. 초(楚)나라 항우(項羽)가 해하(垓下)에서 유방(劉邦)의 한군(漢軍)에게 포위되었을 때, 사방의 한군 이 초(楚)의 노래를 부르자 초나라 군사가 고향생각으로 한나라에 항복하는 자가 많았음.

1교시

#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.

感謝합니다! ^^



## 피교시

- 1. 사자성어(四字成語)
- 2. 상용 사자성어(四字成語)

- ❖ 三顧草廬(삼고초려): 중국 삼국시대 촉한(蜀漢)의 유비(劉備)가 제갈공명(諸葛孔明)을 세 번이나 찾아가 군사(軍師)로 초빙한 데서 유래한 말. 인재를 얻기 위해 참을성 있는 노력을 기울임. 三顧茅廬(삼고모려)와 같은 말.
- ❖ 塞翁之馬(새옹지마): 변방 늙은이의 말(馬). 재앙이 복이 되고 복이다시 재앙이 되다. 즉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흉화복의 변화가 잦은 것을 비유한 말. 인생의 행복, 불행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어예측하거나 속단할 수 없다. 전화위복(轉禍爲福)과 유사함.
- ❖ 十匙─飯(십시일반): 열 사람이 한 숟가락씩 보태어 한 그릇의 밥이되다. 즉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쉽다는 뜻.
- ❖ 羊頭狗肉(양두구육):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, 겉으로는 훌륭한 체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을 말한다. 또 겉과 속이 달라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변변치 못 함을 이르는 말이다.

- ❖ 小貪大失(소탐대실):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. 사소한 일에 집착하다가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에 쓰는 말.
- ❖ 良藥苦口(양약고구):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뜻으로, 좋은 충고는 귀에 거슬린다는 말.
- ❖ 語不成說(어불성설): 말이 조금도 이치에 맞지 않음.
- ❖ 言語道斷(언어도단): 말할 길이 끊어졌다는 뜻.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힘.
- ❖ 言中有骨(언중유골):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뜻으로, 예사로운 말속에 깊은 속뜻이 숨 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- ❖ 烏飛梨落(오비이락):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, 어떤 일이 마침 아무 관계 없는 다른 일과 때가 일치해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됨 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
- ❖ 臥薪嘗膽(와신상담): 섶에 누워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, 원수를 갚고자 온갖 고생을 참고 견딤을 이르는 말. 춘추(春秋)시대 오왕(吳王) 부차(夫差)가 월왕(越王) 구천(句踐)을 쳐서 부왕(父王)의 원수를 갚고자 섶 속에 누워 잠을 자는 고생을 하며 결국 부왕의 원수를 갚은 일, 또 월왕 구천이 오(吳)나라를 쳐서 회계(會稽)의 치욕을 씻고자 쓸개를 핥으며 보복을 잊지 않았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. 복수심을 품고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며 고난을 참고 견디어 심신을 단련함을 비유함.
- ❖ 人面獸心(인면수심): 얼굴은 사람 모습을 하였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. 남의 은 혜를 모르고 마음이나 행동이 몹시 흉악한 사람을 이르는 말.
- ❖ 一瀉千里(일사천리): 한 번 쏟아진 물이 천리를 흐른다. 즉 일이 막힘 없이 잘 진행됨을 비유하는 말.
- ❖ 一魚濁水(일어탁수):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흐린다는 뜻.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그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함.

- ❖ 一以貫之(일이관지): 하나로써 그것을 꿰뚫었다는 뜻. 하나의 이치로써 모든 것을 일관(一貫)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밀고 나감.
- ❖ 切磋琢磨(절차탁마): 옥돌을 자르고(切), 줄로 쓸고(磋), 끌로 쪼고(琢), 갈아(磨) 빛을 내다라는 뜻. 학문이나 덕행을 열심히 닦는다.
- ❖ 糟糠之妻(조강지처): 가난한 때에 술 지게미(糟)와 쌀겨(糠)로 끼니를 함께 이어가며 고생한 아내. 어려울 때에 고생을 함께 한 아내를 일컬음.
- ❖ 朝三暮四(조삼모사): 송(宋)나라 사람과 원숭이의 고사에서 유래. 아침에 세개, 저녁에 네 개라는 뜻. 간사한 속임수로 어리석은 이를 농락함을 이름.
- ❖ 天高馬肥(천고마비): 하늘이 높아지고 말이 살찌는 계절인 가을을 가리킴. 원래 고대 중국에서 흉노족의 침입을 두려워하여 나온 말임.
- ❖ 青出於藍(청출어람): 쪽에서 나온 푸른색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. 제자가 스승보다 나음을 비유한 말. 청출어람이청어람(靑出於藍而靑於藍)의 준말.

- ❖ 針小棒大(침소봉대): 바늘같이 작은 것을 몽둥이 만하다고 크게 부풀려 말한다는 뜻. 즉 작은 것을 크게 과장해서 말함.
- ❖ 兎死狗烹(토사구팽): 사냥하러 가서 토끼를 잡으면, 사냥하던 개는 쓸모가 없게 되어 삶아 먹는다는 뜻. 일시적으로 사람을 이용하고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버리는 것을 비유한 말.
- ❖ 破竹之勢(파죽지세): 대나무를 쪼개는 기세라는 뜻. 대나무가 단번에 쪼개지는 것 같은 왕성한 기운. 세력이 워낙 빠르게 확산되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- ❖ 螢雪之功(형설지공): 반딧불과 눈빛으로 이룬 공이라는 뜻. 가난 속에서 고생하며 공 부하여 마침내 큰 공을 이름을 일컫는 말.

- ❖ 畵蛇添足(화사첨족): 뱀을 다 그리고 나서 있지도 아니한 발을 덧붙여 그려 넣는다는 뜻. 쓸데없는 군짓을 하여 도리어 잘못되게 함을 이르는 말.
- ❖ 膾炙人口(회자인구): 생선회(膾)와 구운 고기(炙)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찾아서 입에 자 주 오르내리는 데서 나온 말. 맛있는 음식처럼 시문(詩文) 등이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찬양을 받는 것.
- ❖ 會者定離(회자정리):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뜻.
- ❖ 興盡悲來(흥진비래):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. 세상일은 좋고 나 쁜 일이 돌고 돌아 순환됨을 이르는 말.

2교시

#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.

感謝합니다! ^^

